

=====

2015년 02월 15일 주일

=====



출처 : 만남과 대화 god21.net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성자와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며 <용서의 말씀>을 전해 주신 후,

그다음에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며 2015년을 '주의 뜻'을 달고 새롭고 온전하게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뜻>을 이루고 <휴거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 지난 주 주일에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뇌'를 사용하는 방법>과 <육 성장, 정신 성장, 행동 성장을 하여 온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더 할 수 없이 충분히 말씀해 주었지요?

◎ 오늘은 <자기 생각>을 주관하여 사탄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도록 썩기를 막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 지난 주 주일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3편 말씀>입니다. 곧 <사탄과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멸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 오늘은 핵심만 탁탁 치면서 말씀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핵'이 들어가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 설교자들이 '성자와 분체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외쳐 줄 테니,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뇌에 깊이 꽂으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즉시 사탄도, 악도, 불의도 멸할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말씀 시작 >

◎ <사탄과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멸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기 위해 먼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사람>은 왜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니,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요?

성자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사람이 왜 <사람>이냐?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사람이다. '형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시체>도 '형체'는 있다. 그러나 <죽은 자, 시체>는 '마음과 생각'이 없다.

<사람>은 '마음, 생각, 혼, 영'이 있다. 이들이 살아서 생각하고 행하니, <사람>이다. '형체'만 있고 '마음과 생각'이 기능을 못 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끝>

바람도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기>입니다.

<사람>도 '마음·정신·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숨만 쉬는 <하나의 공기 같은 존재>로만 됩니다. 바람이 불듯 '마음·정신·생각'이 움직이며 기능을 해야 "마음이 물결 같다. 파도 같다. 정신이 칼 같다."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혀야 <바람>이 불고, <강풍>도 불고, <태풍>도 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삼위일체의 마음'이 일체 돼야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천둥 번개 치듯 <무섭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

'자기 마음'이 '삼위일체의 마음'과 부딪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발에 묻힌 보화>를 찾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생각>을 놀리지 말고 움직여 생각해라. 그리고 <네 몸>과 함께 부지런히 다니면서 행하여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현실과 부딪혀 얻게 되고, <돌풍 치는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난다.

생각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얻을 것>을 얻는다. 행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얻을 것>을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간다. 그러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마음과 생각>을 때려잡아야 된다.

자기가 <못된 생각>, <삼위의 법을 벗어난 생각>을 하면, "이 잡놈 마음아. 내 그냥 안 둔다." 하면서 뱀 잡듯, 질항아리 깨뜨리듯, 가라지를 불사르고 잡초를 뽑듯 <나 성자의 말씀의 도끼>로 확 찍어 없애라.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더욱 중요

◎ 지금부터 <사탄, 악, 불의를 멸하는 방법>을 핵심만 탁탁 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잘 듣고 '능력과 권세'를 받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뇌신경과 몸 신경>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집니다.

‘〈생각〉을 잘하기’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다스리기’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뱀 잡듯
잡기’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질항아리 깨뜨리듯 깨뜨리기’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잡초를 뽑듯 확
뽑아내기’입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불의’로 길들여지면
‘불의’를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체질〉에 배어
‘불의’를 좋아하며 행하게 된다.

〈그릇된 생각〉을 절제해라. 멸해라!”
(하셨습니다.)

선생도 〈그릇된 생각〉을 절제하고
멸하니, 뇌가 즉시 〈좋은 생각〉으로
쏠려서 그 시간에 ‘성자의 계시’를
받아써서 100권의 책의 책을
썼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꺾으면 ‘승리하는
길’로 가집니다. 〈불의한 생각〉을 멸한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한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꺾고
멸하는 자는 그 시간에 ‘천국의 길’을
질주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불의한 생각〉을 없앨 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그 즉시!! 짓뭇개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이 아주 작더라도
그대로 두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 때,
그 즉시!! 확~ 밟아 없애고 짓뭇개
없애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대승리자’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선생도 〈불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이 더 크기 전에 짓뭇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성자’가 생각나서
성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자는
“내가 곧 갈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니, 성자는 〈오늘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생각〉을 짓뭇개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에게 속한
자’다. 매일 이겨라! 매시간 〈생각〉을
다스리고 이겨라.” 하셨습니다. 〈끝〉

〈생각〉은 보는 것, 듣는 것,
몸이 닿는 것, 행하는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로 봐도, 들어도, 몸에
달아도, 행해도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의롭게 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다스리면서
〈불의한 생각〉을 짓뭇개면,
〈사탄〉도 짓뭇개 없애 버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기〉를
이기는 자가 〈사탄〉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불의한 생각〉은 마치 ‘지렁이만 한 뱀
새끼’가 커서
자기 몸을 휘감고 물어 죽이는
‘독사’가 되듯, 그와 같이 됩니다.

고로 〈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 그
즉시!! 뱀 새끼를 잡아 없애듯 짓뭇개
없애 버리기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성자와 성령님의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끝〉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더 깊이 말씀합니다.
잘 듣고 〈사탄과 악과 불의를 멸할
능력과 권세〉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같은 파장의
대상자들’입니다.

고로 누가 〈불의한 생각〉을 하면,
마치 ‘바람’을 타고 ‘나쁜 공기’가
자기에게 오듯 〈불의한 생각의
파장〉이 자기에게 전해져 옵니다.
고로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 즉시 멸해야 됩니다.

어떻게 멸할까요?

(* 화면을 보면서, 성자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5〉 중요

〈이성의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바람’을 타고 ‘나쁜 공기’가 와서
‘코’로 들어오듯, ‘파장’을 타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온다.

‘나쁜 공기’가 ‘자기 코’로 들어오면,
즉시 코를 막고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즉시 ‘이성의 파장과 음란한 파장’을
저주하면서 말해라. 그러면 그 순간
〈뇌의 파장〉이 뒤바뀌어 버린다.

이는 마치 밤중에 도둑이 문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문을 확 여니
도둑의 머리가 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 10층에서 떨어지는 격이 된다.

그리함으로 〈불의한 마음〉도 떨어지고,
〈사탄과 귀신〉도 떨어져 박살 나 속
시원하게 없어진다. 그리함으로 방에서
〈나 성자〉와 함께 ‘사랑의 잔치’를
하게 된다.

이것을 못 하면, 〈사탄〉과 함께
‘불의의 잔치’를 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 〈끝〉

(* 다시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6〉 중요

〈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멍청하다가는
〈불의한 생각〉을 박살 낼 기회를
놓친다. 〈불의한 생각〉이 오는 즉시!
그 생각을 확 밀쳐서 바위 절벽
밑으로 내던져 버려라. 〈끝〉

(*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성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7〉 중요

강도가 밤중에 벽을 타고 네 방의
창문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줄 알고
강도가 이불 속에 들어와서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었지?” 하며, 자기 할 짓 다 하고,
네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네 입을 쇠 실로 바느질해서
꺾매 놓고 간다.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자르지 않고, 짓밟개지 않고,
멀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서 용납하는
자는 이와 같이 ‘불의’에게 당하고
만다.

강도가 벽을 타고 올라와 네 방의
창문을 열기 전에 뜨거운 물을 붓든지,
쇠몽둥이로 머리를 후려치든지 해라.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그 즉시
잘라라! 박살 내라! 멀해 버려라!
그러면 나 성자를 만나서 ‘기쁨과 의와
사랑의 잔치’를 하게 된다.
〈끝〉

◎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요? 꼭 ‘그 능력과 권세’를
써먹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

(* 〈설 명절〉을 안 맞는 나라들은
위와 같이 말씀을 마친다.)

(* 〈설 명절〉을 맞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이 말씀을 마친다.)

◎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을 맞게 됩니다.

-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고,

-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마음을
붙들고,

- 신부로서 자기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

- 성자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성자와 함께 ‘행복한 사랑의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선생도 그리할 테니까요.
〈신부〉는 신랑과 ‘심정 일체, 행동
일체’입니다.

◎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요? 꼭 ‘그 능력과 권세’를
써먹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